

# KIA 마운드 '전략 수정'...방망이는 '계획대로'

### 우천 순연에 4차전 선발 변화 예고...운영철 대신 네일 재출격 2차전 1회 빅이닝 만들며 승부 갈라...최형우 2루타 12개 '新'



하늘이 KIA 타이거즈 마운드 전략을 바꿨다. KIA는 2024시즌 정규시즌을 1위로 마무리하면서 한국시리즈 직행에 성공했다.

지난 4일 한국시리즈에 맞춰 훈련에 돌입한 KIA는 차분하게 'V12'를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상무야구단, 롯데 자이언츠, 자체 연습경기까지 세 차례 실전도 소화하면서 한국시리즈에 나설 30인을 정하고 선발 로테이션까지 빈틈 없이 마련했다.

하지만 '날씨'라는 변수가 KIA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연습경기에서도 KIA는 비를 만나 고생을 했다. 14일 롯데와의 연습경기는 비를 피하기 위해 오후 6시 예정했던 경기를 오후 1시로 앞당겨 진행했고, 18일 준비했던 자체 연습경기는 비 때문에 하루 밀어 19일 치렀다.

우여곡절 '가을잔치' 준비를 마치고 대망의 한국시리즈 무대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비를 만났다.

21일 경기가 6회초 중단됐고, 22일로 미뤄진 경기도 우천 순연되면서 23일에 한국시리즈 1·2차전이 연달아 펼쳐졌다.

준비한 대로 제임스 네일과 양현종이 1·2차전 선발로 나섰고, 에릭 라우어의 3차전 출격이 예정됐지만 비로 시즈 일정이 미뤄지면서 4차전 선발에 변화가 예고됐다.

KIA 이범호 감독은 운영철을 4차전 선발로 준비했지만 네일이 먼저 마운드를 책임질 예정이다. 비로 하루씩 경기가 밀리면서 4일 휴식을 취하고 4차전이 열리는 27일 네일의 등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삼성 1차전 선발이었던 원태인도 비 때문에 66구를 던지는 데 그쳤던 만큼 네일과 원태인이 맞대결은 4차전에서 다시 성사될 예정이다.

날씨가 바꾼 선발로테이션이 KIA에는 썩 반갑지는 않다.

KIA는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만큼 차분하게 4선발까지 맞춰 마운드 준비를 해왔다. 반면 삼성은 원태인과 레예스라는 막강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불펜에서 약점을 보이면서 선발자원은 전천후로 활용하는 등 선발진 고민을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비가 삼성 마운드 운영에 숨통을 틔워줬다.

지난 19일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선발로 나선 레예스가 낙낙한 휴식을 취한 뒤 등판할 수 있

게 됐고, 1차전에서 호투를 선보인 '다승왕' 원태인도 4차전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삼성은 비 덕분에 원투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은 "삼성도 하루를 더 쉬다 보니까 투수 로테이션 같은 게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4선발까지는 맞춰놨는데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상황에 맞춰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 생각했던 한국시리즈와는 변화된 시리즈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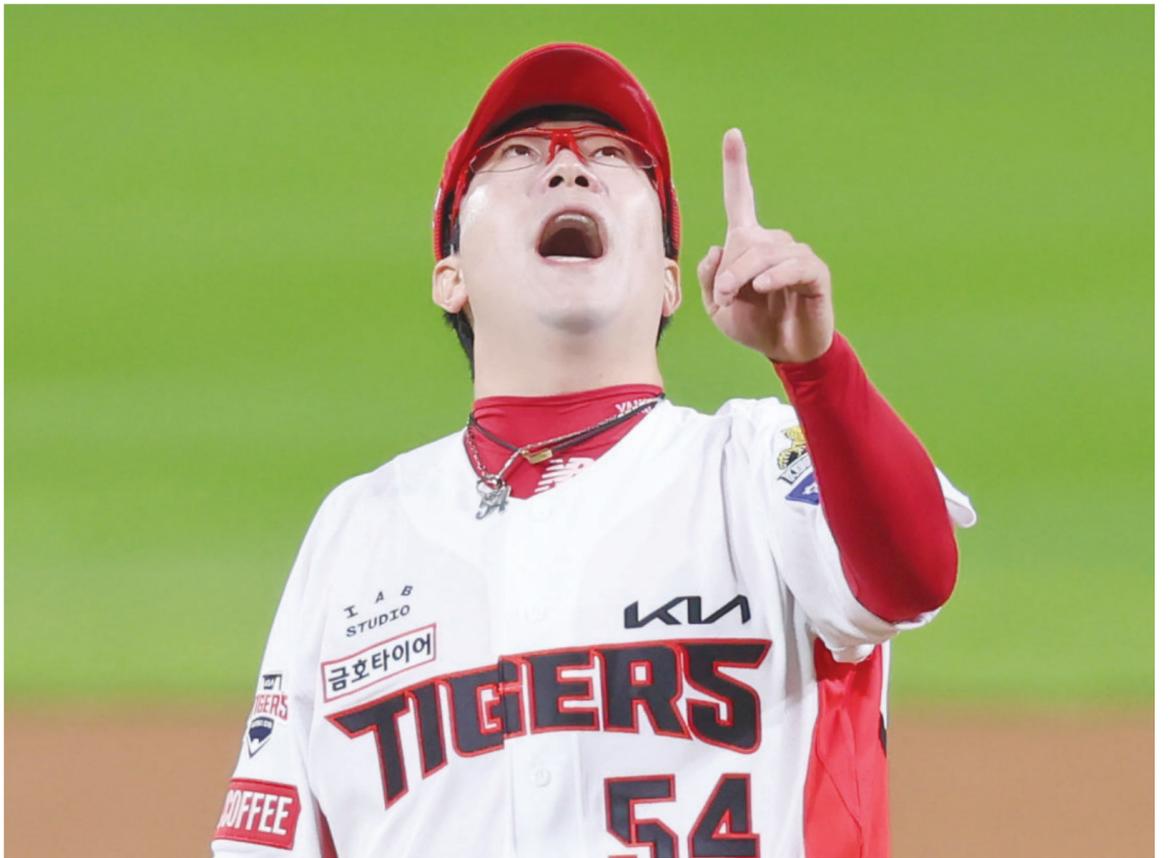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운드가 돌아가게 됐지만 준비했던 방망이는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KIA는 'V12'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KIA는 23일 오후 4시 재개된 1차전 승부에서 7회 임창민의 연속 폭투에 이은 소크라테스, 김도영의 연속 적시타로 4점을 뽑으면서 역전승을 거뒀다.

이어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 2차전에서는 1회부터 황동재를 상대로 5점을 뽑으면서 빅이닝을 만들었고, 2회에는 김도영의 한국시리즈 첫 홈런도 나왔다. 김도영은 5-0으로 앞선 2회말 이승민의 5구째 142km 직구를 우측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솔로포를 장식했다.

'최고참' 최형우는 2차전 4번 타자로 나서 5회 송은범을 상대로 우중간을 가르고 2루까지 내달렸고, 한국시리즈 통산 최다 2루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앞서 최형우는 11개의 2루타를 기록하면서 전준호와 타이틀을 이루고 있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3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2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1차전을 세 번씩이나" "21년 만에 처음 경험"

### 한국시리즈 말말말

▲용장합니다 = '슈퍼스타' 김도영의 기습 등장 한국시리즈다.

김도영은 올 시즌 KBO리그의 기록들을 연달아 갈아치우면서 시즌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한국시리즈를 앞두고도 김도영에 많은 시선이 쏠렸다. 생애 첫 한국시리즈인데 많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김도영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시리즈에 대한 큰 모험이 있다"며 '가을 잔치'를 기다렸던 김도영은 "21일 경기를 하면서 긴장감은 없었던 것 같다. 가슴이 웅장해졌다. 확실히 관중석 분위기가 다르다. 응원 열기가 다르

다"고 잔치를 즐겼다.

▲그래서 칠 거야? 말 거야? =삼성 김영웅은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언급된 선수 중 한 명이다. 지난 21일 삼성이 1-0으로 앞선 6회초 무사 1·2루, 김영웅은 타석에서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던 만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 가장 주목을 받았다.

23일 1차전 경기를 앞두고 배팅 훈련을 위해 실내 연습장으로 향하던 김영웅이 KIA 선수들과 마주쳤다. 박찬호는 "칠 거야? 말 거야?"라면서 김영웅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다. 김영웅은 "경기 당시에는 치려고 했다. 지시에 따르겠다"며 혼선 전략을 펼쳤다.

▲1차전을 세 번씩이나 =사상 초유의 서스펜

디드 게임이 펼쳐지면서 KIA 이범호 감독과 박진만 감독은 1차전 관련 인터뷰를 3번이나 했다.

지난 21일 서스펜디드가 선언된 뒤 그리고 22일 경기에 앞서 취재진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리고 22일 경기가 우천 순연되면서 23일 이범호 감독은 다시 또 서스펜디드 게임이 재개됐을 때 마운드에 올릴 투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인터뷰를 세 번씩이나 한다고 웃은 이범호 감독은 "작전상 투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전날 생각했던 투수에서 바꿨다. 워낙 중요한 상황이고 3-4개 안을 놓고 고민했는데 오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해당인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과의 기싸움을 위해 비밀에 부쳤던 투수

는 전상현이었다. 전상현은 이날 오후 4시 재개된 1차전 게임 투수로 나와 무사 1·2루를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이범호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고, 1차전 데일리 MVP에 선정됐다.

▲21년 만에 처음 경험하고 있는데 = 포스트시즌 역사상 첫 서스펜디드 게임이 펼쳐지면서 KIA와 삼성은 23일 두 경기를 연달아 소화했다. 긴장감 가득한 한국시리즈 대결을 연달아 치르게 되면서 체력 안배가 키워드가 됐다. 특히 포수 자리가 체력적인 부담이 많은 만큼 삼성의 야수 최고참 강민호의 두 경기 연속 기용도 관심사였다.

이에 삼성 박진만 감독은 "잘 쉬었다. 강민호도 한국시리즈 21년 만에 처음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것 안 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민호의 두 경기 연속 기용을 이야기했다. 프로 21년 차인 강민호는 이번 가을 마침내 한국시리즈 출전이라는 소원을 이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페퍼스, 올해는 다르다...창단 첫 개막전 승리

###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한국도로공사 3-0 완파 장소연 감독 "이제 시작"...내일 안방서 홈 개막전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 A시퍼스가 창단 이래 첫 개막전 승리를 거머쥐며 V리그에 새 바람을 예고했다.

페퍼스는 지난 2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0(25-17 25-22 25-14) 셋아웃 승리를 거뒀다. 2021년 창단 후 기록한 첫 개막전 승리다.

'원 팀'을 강조해 온 장소연 감독은 정규리그 데뷔 첫 경기서 승전보를 전하면서 이번 시즌 기대감을 키웠다.

지난 2021년 창단한 페퍼스는 리그 합류 첫 시즌 개막 5연패를 당했고, 2022-2023시즌 17연패, 2023-2024시즌 개막전 패배 후 23연패라는 불명예 기록을 썼다.

하지만 페퍼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사령탑 장소연 감독의 지휘 하에 분위기 쇄신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를 완파한 후 장 감독은 "초반 싸움이 잘

됐다. 서브 공략이 효과적으로 잘 이뤄졌고 1세트 첫 비디오판독이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초반부터 잘 시작됐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첫 경기 출발이 좋지만 이제 시작이다.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리그 잘 치르겠다"고 전했다. 페퍼스는 1세트 첫 포인트부터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 점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주장 박정아의 첫 득점으로 페퍼스가 초반 상대를 압도했고, 하혜진의 서브 에이스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5-1로 앞섰다.

2세트에서 범실 8개를 쏟아낸 도로공사를 가볍게 누르고 3세트를 시작한 페퍼스는 짜임새 있는 전략으로 승기를 가져왔다.

장위의 이동 공략, 박정아의 스파이크, 자비치의 백어택, 이한비의 수비 등 기세를 탄 페퍼스는 도로공사에 14점만 허용한 채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박정아와 자비치는 양 팀 최다인 14점을 올렸고 장위와 이한비가 12득점씩 따내면서 활약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니콜로바가 가장 많은 12점을 냈고, 강소휘 10득점, 배유나 9득점에 그쳤다.

공격 성공률 63.64%를 기록한 박정아는 이날 역대 통산 공격득점 5000점을 돌파하며 V리그 여자부 역대 2호 (1호 현대건설 양효진)라는 값진 개인 기록을 세웠다.

이번 개막전에서 MVP가 된 세트 이원정은 세트 성공률 13.67%를 기록하며 공격수들의 활약에 숨은 조력자가 됐다.

그는 "이한비에게는 빨리 쏘주는 편이고 키가 큰 편인 박정아는 조금 더 세워주는 편"이라며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그래도 언니들이 제 공을 잘 때려줘서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이원정은 이날 2세트 3-3 상황에서 중심의 비디오판독 요청 전 먼저 손 들고 터치아웃을 인정하며 V리그의 '그린카드 1호 선수'도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제고하고 경기 지연을 방지하는 그린카드 제도를 이번 시즌부터 V리그에 도입했다.

지난 3일 컵대회에서는 한국 프로배구 최초로 이예림이 그린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컵대회와 정규리그 첫 그린카드의 주인공은 모두 페퍼스에서 탄생했다.

한편 개막 첫 경기에서 매운 맛을 보여준 페퍼스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안방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공과의 홈 개막전을 치른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시퍼스가 2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개막전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에 세트스코어 3-0 셋아웃 완승을 거뒀다. 득점 후 기뻐하고 있는 페퍼스 선수단. (KOVO 제공)